

영광 하반기 일자리사업
참여자 오는 9일까지 모집

영광군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오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5개 사업, 17명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1인 가구는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취업취약계층이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촌진흥 실증시험포 관리사업 △산림(농공)단지 주변 환경정비사업 △공공하수환경정비사업 △군서면 100리 꽃길 조성사업 △대마면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이며, 참여자는 육묘장 관리·풀베기·시설물 청소·꽃묘 식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청년층, 취업취약계층 등을 우선 선발하고, 6월 중 심사를 거쳐 참여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참여자는 7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하루 6~8시간, 주 30~40시간씩 근무하게 된다.

/영광=서종민 기자

장흥 '청년행복up 프로젝트'
청춘동아리 활동 운영 '인기'

장흥군은 청년문화 활성화와 건전한 청춘남녀 만남을 위해 추진 중인 '청바지' 동아리 사업과 '청년행복up 프로젝트'가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2년째 추진하고 있는 청년동아리 '청바지' 활동은 4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선호도가 높은 3개(스크린골프, 볼링, 트레킹)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으며,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의 연애관에 맞춰 운동과 취미 활동을 공유할 수 있어 많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올해 신설된 '청년행복up 프로젝트'는 자기 개발 기회와 소통을 위한 가족공예, 생활공예, 원예힐링, 목공예 등 매 회기 다양한 활동이 지원되고 있어 신청 초기에 모집이 마감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청년 활동들을 건강하게 축면화를 지원하는 장흥군 가족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면서 머지 않은 미래에 가정을 이룰 청년들이 즐겁게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흥=임민기 기자

'수령 200년 배나무' 등 나주 향토문화유산 5건 신규 지정

금강계 중수계안과 관련문서·나주성당 유적·척서정 등 지정 고시

나주시가 수령 200년 된 '나주 토종 배나무'를 비롯한 고문서·건축물 등 5건을 나주향토문화유산으로 신규 지정했다.

나주시는 최근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자문위원 심의를 거쳐 '나주 토종 배나무', '금강계 중수계안과 관련문서', '호남절의록·금성삼강록', '나주성당 유적', '척서정'을 지난 30일 나주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나주시 향토문화유산'은 국가 또는 전남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역사·학술·예술·경관적 가치가 큰 지역의 유·무형 유산과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말한다.

이중 '나주 토종 배나무'는 재래종으로 노안면 학산리의 수령 200년 배나무와 다도면 도동리의 수령 200

년 된 배나무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고시됐다.

전국 최대 배 추산지인 나주에서 토종 배나무가 갖는 역사 브랜드적 가치와 전통 문화유산으로서 의미와 보존의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금강계 중수계안과 관련문서'는 1519년 기묘사화 이후 나주 금사정(錦社亭)에서 지역 출신 유생 11인이 조직한 '금강계'(錦江契)와 관련된 고문서다.

조선 전기 나주지역 사립과의 행보를 말해주는 역사적 자료로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5개 국난 극복을 위해 활동한 호남지역 출신 의적에 대한 기록 유산이다.

1802년 간행된 고문서인 '금성삼강록'(錦城三綱錄)은 나주지역 총신, 효자, 열부 등 '삼강'(三綱)에 뛰어난 인물의 행적이 수록돼 있다.

2개 고문서는 다시면에 거주하는 이재항 씨의 기증을 통해 현재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 수장고에서 관리 중이다. 당시 지역 인물, 문화를 연구하기 위한 사료적 가치를 높이 평가 받았다.

'나주성당 유적'(나주시 박정길3은 전라도 지역에서 3번째, 1934년 건립된 성당 건축물로 분당, 현 대주교 기념관, 까리파스 수녀원, 종탑 등 4개소를 포함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고시했다.

근대기 성당 건축양식이 남아있어 건축학적 보존 가치가 높다는 의견이다.



나주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고시된 수령 150년의 나주 노안면 배나무.

'척서정'(陟西亭)나주시 노안면 금안길 29)은 고려후기 무신 '정지'(1347~1391)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후손 정해일(1858~1925)이 1915년 건립한 영당(靈堂)이다.

전통목조 건물로서 가구 구조가 견실하고 1976년 중수 이후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어 건축사적 보존 가치가 높다.

나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지정·등록해 지역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서철훈 기자

엘로우시티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 광주 오픈 '초읽기'

광주 오통동에 오는 14일 임시 개장...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 농산물 공급

장성군이 광주광역시 북구 오통동에 조성 중인 '엘로우시티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이 오는 14일 임시 개장한다.



'엘로우시티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통시설이다. 농가 직거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광주권에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문을 연 장성군 남면 로컬푸드 직매장이 연매출 132억 원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 같은 예상에 힘이 실린다.

직매장이 들어서는 곳은 광주과학기술원 옆(오통동 949-5)으로, 12만 명 규모의 소비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총 사업비는 90억 9500만 원(국·도·군비)으로, 5257㎡ 규모 부지에 2층 건물로 지어졌다. 1층은 직매장, 2층에는 쿠팡스쿨과 교육장이 들어선다.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총괄 운영하며, 장성지역 1066 농가가 출하약정을 체결해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한다. 정육, 수산, 베이커리, 반찬, 떡, 로컬커피, 푸드코트 등 9개 점포도 입주했다.

그밖에, 직매장 내에 광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 상생 협력도 도모한다.

/장성=심재식 기자

화순군-태양광 시공 기업 교령전기기술라, 21억 투자협약

동면제2농공단지로 사업장 이전...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화순군과 전남도가 지난달 31일 태양광 구조물 제작 시공업체(주)교령전기기술라와 투자규모 21억 원, 고용인원 20명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교령전기기술라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10억 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장치 전문 시공업체다.

교령전기기술라는 태양광 구조물 시공을 전문적으로 해 왔으나 직접조달을 위해 동면제2농공단지에서 생산 시설을 신축,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령전기기술라는 협약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동면제2농공단지 4626㎡ 부지에 생산 공장을 신축하고 광주사업장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장 이전이 완료되면 지역생산품 구매, 지역 인재 고용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많은 유망 업체를 유치해 우리 군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주승현 기자

담양, 사군자정원 준공 기념식수 행사

조성 당시 분묘 영령 혼 기리기 위한 진혼제 열려



담양군은 지난달 30일 전남도 제2호 지방정원 준공원 내 위치한 사군자 정원의 준공을 기념하고 전국의 대표적인 도시정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념식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형식 담양군수와 김정오 담양군의회 의장 등 관련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군자정원 중앙부지에 사군자 정원의 상징성 및 담양군 근화인 매화를 고려하여 희귀수목인 40년생 수양홍매화를 심었다.

또한 이날 진혼제(鎭魂祭)를 열어 사군자정원 조성 당시 이장했던 분묘 영령의 혼을 위로했다. 사군자정원은 '자연을 품은 생태정원도시'의 군정방침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2년여에 걸쳐 총 사업비 57억 원을 투입해 조

성했으며, 정원 내에는 사군자를 대표하는 매(梅), 난(蘭), 국(菊), 죽(竹) 4가지 주요 식물이 식재되었다.

또한 한옥 4채와 2개의 현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자숙(君子塾), 누정 및 누각을 구축해 개원 후 군자숙은 관광객 한옥 숙박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자연을 품은 생태정원도시에 어울리는 품격 있는 정원의 탄생을 축하하고 분묘 영령의 혼을 기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며 "학식과 인품, 덕이 높은 사람을 비유한 '군자'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원문화 확산과 발전을 통해 지속적인 미래정원도시 담양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조승채 기자

담양농·특산물 전문몰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을 담다

담양장터 OPEN

건강한 자연을 담은 담양의 먹거리를 만나보세요.